

무형유산, 인류가 지켜야합니다

전주시, 세계무형유산대상 시상식·'프론티어쉽:대담' 개최... 세계 전문가들 모여 발전방향 논의

세계 곳곳에서 활동해온 무형유산 전문가들이 인류가 지켜야 할 무형유산보호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전주를 찾았다.

전주시는 지난 27일 전주한벽문화관에서 세계 곳곳에서 무형유산의 보호와 발전에 힘써온 개인·단체 등을 발굴해 무형유산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제1회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시상식' 및 '프론티어쉽:대담'을 진행했다.

먼저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48명의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국립무형유산원과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자리 잡아 무형문화유산의 보고로 불리는 전주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전승·발전시키는데 앞장서온 인물 또는 단체를 찾아 시상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시상제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인도의 전통예술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콘택트 베이스' △캐나다 무형문화유산과 지역사 보존에 힘써온 '뉴펀들랜드와 라브라도 유산재단' △무형문화유산 정책 발전에 공로가 있는 모로코의 아미드 스킨티 교수가 제1회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에게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3호 웃웃칠장 의의시 보유자가 제작한 상패와 함께 총상금 2만1500달러(단체 1만 달러, 개인 5천 달러)가 수여됐다.

시상식에 이어 제1회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수상자와 로저 자일리 인디아나대 명예교수, 임둔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양진성 임실필봉농악보존회장, 최동환 아태지역 유네스코인가 NGO 운영위원, 황권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등이 참여하는 대담도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국내외 무형유산 전문가들과 활동가 등은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협치의 이상적모델'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펼쳤다.



전주시가 지난 27일 전주한벽문화관에서 무형유산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제1회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시상식' 및 '프론티어쉽:대담'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한벽문화관 놀이마당에서는 △인도의 전통예술인 파타치트라 △국가무형문화재 선자장 김동식 보유자의 시연·체험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이강주 시음회 △전주미래유산 사진전 등이 진행됐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을 제정하고, 수상자 선정에 위해 무형문화연구원과 함께 국제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36개국 48개 팀의 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의, 후보자 검증을 통해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수상자 중 인도의 콘택트 베이스는 전통예술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지역문화센터를 설립해 가난한 예술가와 마을주민들을 위해 전통생활예술의 산업화, 관광을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캐나다 뉴펀들랜드와 라브라도 유산재단의 경우 캐나다 동부 대서양 연안의 뉴펀

들랜드 섬과 라브라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프로그램과 공동체 기반의 워크숍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실천 활동, 축제를 통한 홍보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아미드 스킨티 모로코 대학 석좌교수는 지난 2002~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과 2006년 협약 시행령의 초안 작성에 참여해 무형유산의 보호에 기여한 인물로, 인류무형문화유산 심사위원을 역임하고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의 모로코 대표와 유네스코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했다.

황권주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시는 48명의 무형문화재가 활동하고 국립무형유산원과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자리잡은 무형문화도시"라며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전승·발전시키고 무형유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북도립국악원, 3·1운동 100주년 창극 '만세배 더듬진'

전북도립국악원이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광복 74주년을 맞아 한국 근대사에 변곡점이 된 사건을 재조명하고자 '만세배 더듬진'을 준비했다.

제52회 정기공연과 2019전주세계소리축제 초청작으로 창극단이 10월 2일 오후 5시, 3일 오후 3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무대에서 선보인다.

해방의 의지가 담긴 '만세배'를 타고 우리 산천과 대한해협을 넘어 일본까지 유람하며 신산했던 우리의 삶을 다양한 소리와 해학으로 풀어냈다. 등장하는 인물에 '개성'이라는 숨을 불어 넣어 활기와 생생함이 더해지도록 했으며, 시공간을 넘나드는 연출에서는 당대 군상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더듬진'에 등장하는 소작농, 미선공, 매갈이꾼, 징용노동자, 뱃사람, 가수지망생, 소리꾼, 징병군인 등은 일제의 억압을 온전히 받아내며 속 시원하게 울분을 터놓을 수 없었던 보통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어 일제 치하 36년간

을 갈무리한다. 필박에 시달리며 일해야 했던 군산 미선공들의 파업, 옥구평야의 이엽사농장 소작쟁이들의 농민항쟁, 일제가 쌀 수탈을 위해 건설한 전군기도, 젊은 시절 강제노역을 당해야만 했던 이종린의 귀국기 등 역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한 명이 최대 6개 역할을 돌아가며 다양한 개성으로 각 인물을 묘사하고 표현해내는 '멀티' 창극단원들의 캐릭터에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 장면별 회전 무대로 만들어진 만세배를 설치해 관객들에게 시각을 통한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창문과 무대 바닥에 영상을 활용해 장면별 상황과 풍경이 나타나도록 했다. 작창은 작품 노랫말에 전통 관소리의 사설을 빌리거나 모티브로 해 극적인 흐름에 기준을 두었으며, 음악은 국악관현악의 웅장함과 장면별 상황을 표현해주는 수성 반주의 경쾌한 선율과 울동적인 장단으로 작품에 흥을 더했다. /뉴스



지난 28일 순창 적성면 논두렁에서 우숨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다.

논두렁에 울려 퍼진 오케스트라 선율

순창군, 주민 등 200명 참여해 팝아트로 만든 벼 추수

순창 적성면 논두렁에서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졌다. 지난 28일 오후 5시 순창 적성면 신월리 인근에 조성된 논그림 주변으로 조우리 지휘자의 우숨오케스트라가 추수를 축하하는 공연을 열었다. 이날 황숙주 순창군수도 직접 현장을 찾아 공연을 준비한 오케스트라단을 축하하는 동시에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을 환하게 맞이했다.

이번 공연은 순창군이 논에 그림으로 활용한 벼들이 추수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논두렁에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단의 보기 드문 광경을 보기 위해 마을 주민을 비롯, 음악 관계자 등이 대거 현장에 참석해 한가한 시골마을이 때아닌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공연의 주인공인 우숨오케스트라 단도 공연 시작전 직접 논그림이 조성된 논에 들어가 벼 추수에 동참하는 사전행사로 함께했다. 공연은 사전 퍼포먼스가 끝나고 1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첫 번째 연주는 모차르트 세레나데 13번 'Eine Kleine Nachtmusik'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진 연주에서는 대중적인 음악인 '봄날', '가브리엘 오보에' 등 드라마나 영화 OST 등을 선보였으며, 세계 중 '가을',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등이 연주됐다.

공연 막바지에 다다르며, 저녁 8시가 가까워지자 오케스트라 선율과 석양이 한데 어우러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했으며, 공연 마지막 곡으로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로 대미를 장식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부안군, 연극 '하녀들' 내달 11일 무료 공연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야심찬 기획공연 연극 '하녀들'을 10월 11일 오후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 2층 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 '하녀들'은 프랑스 극작가 장 주네가 감옥에서 쓴 두번째 희곡으로 초연때부터 온갖 충격과 화제를 일으키며 오늘날까지 공연되고 있는 그의 대표작으로 당시 프랑스 사회에 충격을 던져주었던 이른바 '파랭자매사건'에서 소재를 구한 것으로 추측된다.

크리스틴 파랭과 레아 파랭이라는 자매가 7년동안 하녀로 일하던 집의 여주인과 그 딸을 살해한 뒤 자신들의 방에서 동성을 즐기다 발각된 사건을 그려낸 이야기이다등정인물인

하녀 폴랑주와 팔레르는 자신들이 섬기는 여주인을 증오한 나머지 마담을 흉내 내고, 또 그녀의 애인을 연민하며 그들의 처지를 탐하는 연극 놀이에 빠진다. 애인을 밀고하는 편지를 쓰거나 그녀를 독살하려는 식이다. 결국, 계획은 수포가 되고 마담 역할을 한 팔레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너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자 하는 인간이 가진 욕망의 민낯과 현대사회의 신계급주의가 녹아있는 이번 연극공연에 많은 군민이 봐주시길"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만15세 이상 입장이 가능하다. 공연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예술회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